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최재형, 박찬주, 안상수, 장성민, 원희룡, 하태경, 황교안, 박진, 정기표, 유승민, 홍준표 후보.

# 정전 발표 시작으로 경선버스 '시동'

### 국민의힘, 어제 중앙당사서 비전 발표회 진행 윤석열 제외 12명 참석 국가운영 구상 밝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25일 비전발표회를 갖고 저마다의 국가 운영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준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발표회에서 예비 후보 12명은 7분 동안 본인의 비전을 밝혔다. 이날 예비후보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석열 의원은 발표회에 불참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들께서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 가르

기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5대 비전으로 '무분별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과 재정 포퓰리즘 중단',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삶의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과 제도 혁신', '충충한 교육·복지 체계 구축과 집값 안정' '사법기관 독립과 국의 우선 외교'를 제시했다. 홍준표 의원은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확 막힌 금융지원을

완화해 더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너진 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입시를 정시 위주로 바꾸고 고시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룬 건 우리 국민들"이라며 "코로나 희생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담대한 투자를 하고 혁신 성장판을 키워 3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내년 대선은 1% 승부가 될 것이라며 자신이야말로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후보라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권교체는 분노를 결집하는 것만으로는 될 수 없다"며 "미움으로 가득 찬 정부가 집권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저성장, 일자리, 양극화, 젠더갈등, 기후위기 문제들에 국가 에너지를 총 집중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의원은 "외교는 곧 경제"라며 "한미 관계를 정상화해 첨단경제 기술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후원회장에 김동길 전 교수

### 후원 모금 본격 돌입

제주출신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후원회장으로 김동길(사진) 연세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원 후보측은 이날 후원회 계좌를 열고, 선거운동 캠페인을 시작했다. 원 캠프 관계자는 "김동길 교수는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대한민국 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19대 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목도한 대한민국 정치의 산증인



으로, 원 후보의 대선 행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능력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 원희룡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국민들의 후원 동참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보수 원로인사인 김 명예교수는 연세대 교수, 제14대 국회의원, 신민당 대표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부미현기자

## "이장·통장 임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이장과 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제주시울·사진)은 25일 이장과 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리와 통 단위에서, 지역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등을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적

으로 이장과 통장의 수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에 이장은 약 3만 7000명, 통장은 약 5만 9000명이 재직 중이다. 이장·통장이 전국 지방자치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장과 통장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선출 방법까지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장과 통장은 오랜 기간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온 사람들인만큼 지금까지라도 마땅히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 추경안·상하수도 요금 인상 등 심사

### 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오늘부터 내달 7일까지

제주도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올해 두번째 추가 경정예산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3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398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올해 두번째 추경은 6조5547억원 규모로 기존보다 3237억원 증가했다. 제주도는 2회

추경을 제출하면서 '코로나 피해지원·방역지원·고용지원·민생안정'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 피해지원 1911억원, 방역 지원 226억원, 고용지원 184억원, 민생안정 565억원, 채무상환 290억원 등이다. 또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4차 대우행 정기화에 따른 고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담은 제주형 5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소요 재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난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 '제주도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평균 상수도 요금을 10.8% 인상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현재 t당 470원에서 올해 하반기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된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요금

을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인상 폭은 상수도보다 더 커,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t당 420원에서 올해 하반기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30.5%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비차림로 확·포장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도 이날 다뤄진다. 비차림로 확장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이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의원(성산읍)을 비롯해 도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결의안을 두고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40억원 규모의 제주항공 유상 증자 동의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도 관심을 끄는 안건이다. 이상민기자

## 윤석열, 대선 경선 포기·의원직 사퇴 선언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의원 가운데 첫 자진 사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의원이 25일 대선 경선 포기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이 시간 후로 대통령 후보 경선 여정을 멈춘다.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야당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은 "아버님이 농지 취득 후 어머니의 건강악화로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내로남

불 행태"라며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할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아드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사퇴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날 윤 의원의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소명이 완료됐다"며 별도의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 가운데 스스로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것은 윤 의원이 처음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환영

**전기(산업)기사 필기 취득과정(아간반)**  
교육기간 2021.11.01~2022.02.17(3.5개월, 180시간)  
교육시간 19:00~22:00(평일 주간, 일일 3교시)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 725-5545  
교육내용 전기자기학,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제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기능사취득(필기+실기) 과정(주말반)**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 725-5545  
교육기간 2021.11.06~2022.01.29(3개월, 132시간)  
교육시간 15:00~22:00(토,일, 일일 6교시)  
교육내용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실기 대비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 725-5545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과정**  
대상 실업자·재직자·일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 725-5545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 필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영, 김\*현, 옥\*환, 이\*성, 정\*완, 최\*영, 최\*혜(총9명)

###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8.5cm + 3cm + 폭 5.5mm =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 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굴고리 사용 방법

- 한 번만 먼저 설치하면, 이후엔 단지기 생각가능
-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준 전에 미리 먼저 들 수 있음
-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판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 드는 유인줄 '안파고'**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선 가지 해결!  
+ 원터치&초간편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만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플래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플래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풍 비슷해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줄,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경북 예천군 보문면 신단길 14-28  
DA IN 다인산업(주)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사업주 코로나19 백신접종 안심센터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지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경구역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일) 祚(조) 직원 수시모집

### 누수탐지·방수

017 포크레인 임대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 아파트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누수탐지·가스식 청진기·수도매관·벽돌공사

책임시공, A/S견적 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